

# 풍등 띄우며 회당 대중사 뜻 기려

## 진각종 회당문화축제 울릉도서 개최... '독도의 날' 제정 천만인 서명운동 등 행사 '풍성'

모두가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2009 진각종 회당문화축제'가 7월 28~30일 울릉도 일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축제는 '독도아리랑 진호국가(鎭護國家)'를 주제로 나라발전과 안녕을 염원하는 화합의 장, 평화통일과 역사회복을 염원하는 서원의 장이었다.

이번 축제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서울교구정장 수성 정사, 부산교구정장 혜명 정사, 포교·문사부장 덕정 정사 등 각 지역 대표 정사들과 배도순 위덕대 총장, 총금강회 이상택 회장, 신계륜 신정자 문화원 이사장, 정윤열 울릉군수, 김수년 울릉경찰청장, 김동규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 등 3000여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축제는 28일 울릉도 저동, 도동 일대에서는 독도와 나라사랑 캠페인, '독도의 날' 제정 1000만인 서명운동, 페이스페인팅, 풍등 띄우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시작을 알렸다.

축제의 핵심행사인 생명사랑 콘서트, 독도아리랑 콘서트는 29~30일 도동항 특심무대에서 펼쳐졌다. 29일에는 대구교사·청소년국악관현악단의 공연, 비보이 댄스팀과 사물놀이팀의 협연, 청소년 밴드그룹 '1번 출구' 등의 공연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무더운 여름 갈증을 날렸다.

행사의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군장병들을 특별 초청해 위문품 전달, 풍등 띄우기, 취타대 풍물놀이공연, 소리꾼 장사익씨와 뉴트리팝스 오케스트라 연주 등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열성적인 환호를 하며 관람을 한 김영일(49·포항)씨는 "종교적인 색채가 없어 거부감이 없고 내용과 구성면에서 짜임새가 있는 공연이었다. 불교계가 이런 훌륭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7월 30일 울릉도 도동항에서 펼쳐진 '독도아리랑' 콘서트에서 장사익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잘하는 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 앞서 혜정 정사는 인사말에서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에서 탄생한 진각종의 개종조 회당대중사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종교를 떠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자리"라며 "내년에는 10회를 맞아 독도에서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했다. 본 행사에 앞서 통리원장 혜정 정사, 배도순 위덕대 총장은 독도를 직접 방문해 독도수비대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노고를 치사하기도 했다.

울릉군민들의 문화갈증 해소, 지역문화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축제의 가장 큰 원동력은 자원봉사자와 지역민 중심의 준비위 운영, 울릉도 출신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문화인

재 발굴 등에 있었다. 특히 자원봉사자 30여 명은 행사 전날까지 매일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발 빠른 움직임과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줘 모두를 놀라게 했다.

올해로 4회째 봉사에 동참한 심인고등학교 전병창 교사는 "진각종, 회당문화축제, 울릉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기에 가능한 것 같다. 특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함께 하고 있는 봉사자들과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신행"고 말했다.

울릉도 지역민들의 협조도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울릉도 청년단 김대식 인사위원장은 "회당문화축제를 외부의 행사로 보지 않고 울릉도의 축제로 보고 있다. 울릉도 홍보와 함께 연이어 열리는 각종 축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이 행사가 내년에는 더욱 나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운사·고려대 장학회 설립

## 기숙사 건축 놓고 9개월여 갈등 끝에 '약수'

불교계 반대로 9개월간 중단됐던 고려대 기숙사 신축공사가 개운사와 고려대간 장학회 설립을 골자로 한 합의하에 재개됐다.



오른쪽부터 태원 스님, 범해 스님, 이기수 고려대 총장.

개운사와 고려대는 8월 5일 서울 성북구 개운사에서 주지 범해 스님, 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고려대 이기수 총장, 정진택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대·개운사 장학회'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합의에 의해 개운사, 보타사 등 관련 사찰과 고려대 측은 동수소 '장학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30년간 총 3240명, 총액 15억 원 규모의 장학 사업을 전개한다.

장학회는 조계종 전국 본·말사 등에서 추천한 생활형편이 어려운 고려대 입학생 및 재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입주권 및 연간 5000만원의 기숙사비 및 생활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는 대학과 사찰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상호 이해와 양보가 있었다.

고려대 측은 개운사 및 중앙승가대 등이 문제를 제기한 마애불 등 문화재 훼손과 사찰수행환경 침해 방지를 위해 △진동계측기 상주설비 및 사찰측에 일일보고 △진동기 준치 초과 시 공사중지 중단 및 공법변경 △소음·분진 예방을 위한 사찰측 공사현장 출입 △사찰 대형

행사시 공사 일시 중단 △수행환경보호를 위해 유격거리에 키가 큰 풍치 나무 조성 △문화재 환경에 맞는 건물디자인 설계 변경 등을 약속했다.

범해 스님은 "그동안 세간에서 건축공사를 둘러싼 시행자와 주변 기관간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이 제공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학교와 종교계 갈등을 장학사업에 해결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개운사와의 지난 갈등은 고려대 측이 그동안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일깨운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개운사 등 불교계는 기숙사 공사현장이 개운사 암자인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9호 보타사 마애불로부터 불과 86m, 개운사로 부터는 1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마애불 피해와 신행 후 수행환경 훼손 등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일말의 측은지심이랄도..."

## 불교단체연석회의 준비위 '용산 참사 영가 위령법회'

불교단체연석회의 준비위는 8월 6일 서울 한남동 순천향병원 영안실에서 용산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용산참사 영가 위령법회'를 봉행했다.



참가스님들과 유가족들이 소지의식으로 영가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이날 천도위령법회에는 전 교육원장 청화 스님, 불교환경연대 대표 수경 스님(회계사 주지), 실천승가회 대표 법안 스님, 정토회 대표 유수 스님,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공동대표 등 불교 각 단체 대표인사와 대불청 등 단체의 임원 및 불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희생자를 위한 묵념, 청혼 및 차여 등 불교 의식과 청화 스님의 추모사, 발원문, 수경 스님의 국민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 조가, 헌화, 천도회향의식, 소지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수경 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정부 용산 참사가 사회적 문제임에도 개인문제로 몰아가고 있고, 국민들은 경제난에 이웃의 입에도 외면하고 있다"며 "권력과 정권이 바뀌에 따라 사람의 죽음이 달리 평가받는다"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종교 또한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국민들은 자비든 사랑이든, 아니 일말의 측은지심이라도 내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서불대 사태 여전히 진행중

7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서울불교대학 원대학(이사장 지옥, 이하 서불대)에 2차 계고문을 보냈다. 이에 서불대 측은 8월 3일 교과부에 시정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서불대 학생회의 불만의 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서불대 학생회(회장 오세준)는 7월 17일 교과부의 계고문을 침해하지 말라. 현이사회는 물러가고 임시이사 파견하라'는 제하의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교과부는 2차 계고문에서 △황윤식 총장 및 부당해임 직원의 복직 △김명권, 조육경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수용 △부당해임된 교원에 대한 재계약 심사 진행 △학교장 권한 침해 금지 등을 명령했다. 조숙섭 기자

# 월출산 등 케이블카 사업 본격화

## 영암군 추진위 구성... 도감사 등 '반대'

환경부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완화방안에 따라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전남 월출산 등 전국 명산에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1998년 사업이 무산됐던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걸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 노선은 용추폭포에서 천황봉 주변 1.8km 구간과 도감사를 출발지로 하는 4.6km 구간으로, 민간 자본 2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감사를 비롯한 종교단체들과

전남지역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생태환경 훼손과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보내고 있다. 지자체가 주장하는 케이블카 사업의 수익성 자체가 설악산과 통영 등 일부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설립된 전국 10여 개 케이블카 중 남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은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 월출산 케이블카 추진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전국 16군데에 달한다.

노덕현 기자

# 일불법왕문도회 중앙최고위원 선임장 전달

일불법왕문도회(회장 서의륜) 중앙최고회의는 8월 1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중앙최고위원들에 대한 선임장 전달식을 거행했다.

이날 세계불교범왕청평화재단 이

사장 담화 이종영 삼장전법사 등 최고위원들의 기초연설과 문도회장 의문 서주범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의 인사말과 일불 대중사 생전에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세계승왕인왕 스님의 격려사가 있었다.

**사회**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 희망Dream 꿈 트립

사단법인 지구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 트립'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공생회
- 문 의 : 지구공생회 02)455-9596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품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 강원 교육 -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을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부터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09년 9월 7일 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 범패 · 작법무 -

## 불교예술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 ~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